



<b>코스피</b> 2988.77 (+11.12)	<b>코스닥</b> 1037.83 (+3.35)
<b>금리</b> (미국 3년) 1.855 (+0.057)	<b>환율</b> (원-달러) 1191.80 (+3.00) (3일)



[뉴스]  
文 대통령 신년사  
“헌정질서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진전”  
02

## 회삿돈 1880억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슈퍼개미 짓 ‘일파만파’

회사 자기자본 91.81% 수준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 횡령

동진썸미켈 주식 7.62% 매수  
영장 발부시 모든 계좌 동결  
적법 절차따라 자금 회수 조치

국내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상장사 횡령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돈을 빼돌린 것. 특히 해당 직원이 지난해 10월 반도체 소재업체인 동진썸미켈 지분 7.62%를 사들였던 슈퍼개미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증가 기준 시가총액 2조385억원 규모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내부통제 미비 등 리스크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한다. 이 같은 횡령 규모는 상장사 역대 최대수준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 이씨가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며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모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와 주식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 자금담당자의 특수성을 악용한 단독 범행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 모씨는 횡령한 자금을 이용해 동진썸미켈 주식 1430억 원어치(지분 7.72%)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1~12월 6차례에 걸쳐 해당 주식 1112억원(지분 6.5%)을 장내 매도했다. 매도한 물량과 처분 단가를 살펴봤을 때 취득 단가보다 처분 단가가 낮아 117억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이 모씨는 동진썸미켈 주식 55만주(지분 1%)를 보유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이 모씨의 모든 계좌가 동결돼 상당수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021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에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 심사 과정을 거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빌라, 아파트 거래 뛰어 넘었다

아파트 대신 빌라라도 사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에도 빌라 거래량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2,156건으로 아파트 매매량 567건의 약 3.8배에 달했다. 올해도 민간재개발 사업후보지 선정과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2차 공모가 시작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져 빌라 매수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의 아파트 및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 李-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의지

대선후보 ‘2022 증시 개장식’ 참석  
이재명 “경제 부흥 정책 실행력”  
윤석열 “반기업 정서 혁파”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찾아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두 후보는 증시 상승장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와 빨간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22년도 주식시장의 ‘불장’을 염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저평가된 한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 자본시장을 구축하지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이 후보는 ‘정책 실행력’을, 윤 후보는 ‘반기업 정서 혁파’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연설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매우 디스카운트(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원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해 제대로 평가받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하는 것이 국고를 늘리는 길이고 국민에게 투자의 기회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평가된 자본시장을 극복하는 방법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나, 문제는 실행력”이라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성·공정성·성장성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위기 앞에서 국가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가

디지털 전환, 주기적 감염병 대유행 같은 위기 요인을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다”며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산업 전환을 이뤄낼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謹賀新年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2

## 더한 행복을 함께

2022년 새해는  
지구가 더 건강해지는 해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해  
기업이 더 신뢰를 받는 해

세상에 더 큰 행복을 나누는 새해가 되도록  
SK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상. 행복하도록 SK

